

7월 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하반기 상승 출발..다우 0.7%↑	분기 및 하반기 첫날인 1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쳤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57.06포인트(0.68%) 상승한 8,504.0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68포인트(0.58%) 오른 1,845.72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4.01포인트(0.44%) 전진한 923.33을 각각 기록했다. 경제지표 개선이 하반기 본격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며 투자심리를 지지했음.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10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잠정 주택판매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음. 민간부문 고용 감소폭은 예상보다 컸으나 전월보다는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경기 `10개월 최고`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을 지속했으나 위축 속도는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관리자협회(ISM)는 6월 제조업지수가 전월의 42.8에서 44.8로 상승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44.9와 45.6은 하회한 수준임.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경제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재고가 소진되면서 향후 몇 개월간 기업들의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잠정주택판매 `4개월 연속 증가`	미국 기준주택 판매의 선행지표인 잠정주택 판매(pending home sales)는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5월 잠정주택 판매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한 90.7을 기록했다. 이는 4월의 7.1%(수정치) 상승을 포함해 4개월 연속 상승세로 월가 전망을 넘어선 것임. 블룸버그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월가는 5월 잠정 주택판매가 보합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었음.
유가 하락	국제 유가는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60달러(2.2%) 내린 69.89달러에 마쳤다. 미국 최대 드라이빙 시즌인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경제 위축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고조되었음.

제목	주요 내용
中·글로벌 광산사, 철광석 계약 협상 실패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BHP 빌리톤을 비롯한 주요 광산사들과 중국 강철공업협회(CISA) 등 협상단은 지난 30일, 11시간이 넘도록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음. 중국은 올해 철광석 계약 가격이 지난해 절반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계약 실패는 결국 중국의 무리한 가격 인하 때문이라는 게 중론.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이 28%와 33%의 가격 인하에 합의한 상황에서 중국의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
日 신세이-아오조라銀, 1대1 합병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신세이와 아오조라는 1대1 비율로 오는 2010년 10월에 합병을 완료키로 했음. 합병은행의 자본 규모는 18조엔(1,60억달러) 규모로 일본 내 6위 은행으로 부상하게 됨. 야시로 마사모토 신세이은행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병은 동등합병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합병 후에는 신세이은행이 최종적으로 남게되며 합병은행 CEO로는 현 A.T.커니의 특별 고문인 이케다 노리토가 내정. 이날 이케다 CEO 내정자는 "필요하다면 공공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음
재정부 "7월 물가 1%대 진입 가능	기획재정부는 1일 `2009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7월 소비자물가가 환율안정과 경기하강 요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1%대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국제 원유가격의 강세, 가스요금 인상 영향 등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또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동결로 직접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른 간접 과급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6월 판매 고작 217대..`액티언스포츠`는 단 1대	월 내수 판매는 197대로 전월대비 91.3%가 급감하고, 전년 동월대비로도 89.6%가 감소. 6월 한달 동안 내수시장에서 액티언 스포츠는 단 1대가 팔렸으며, 액티언 6대, 뉴카이런 9대, 렉스턴 10대 등 대부분 차종의 판매율이 전월에 비해 90% 이상 감소.수출 차종 중 렉스턴만 20대 팔려 전체 수출은 20대로 전월대비 96.7%, 전년동월대비 99.6%가 급감했음 지난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쌍용차의 상반기 총 판매는 1만3020대로 전년동월 대비 73.9%가 급감.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